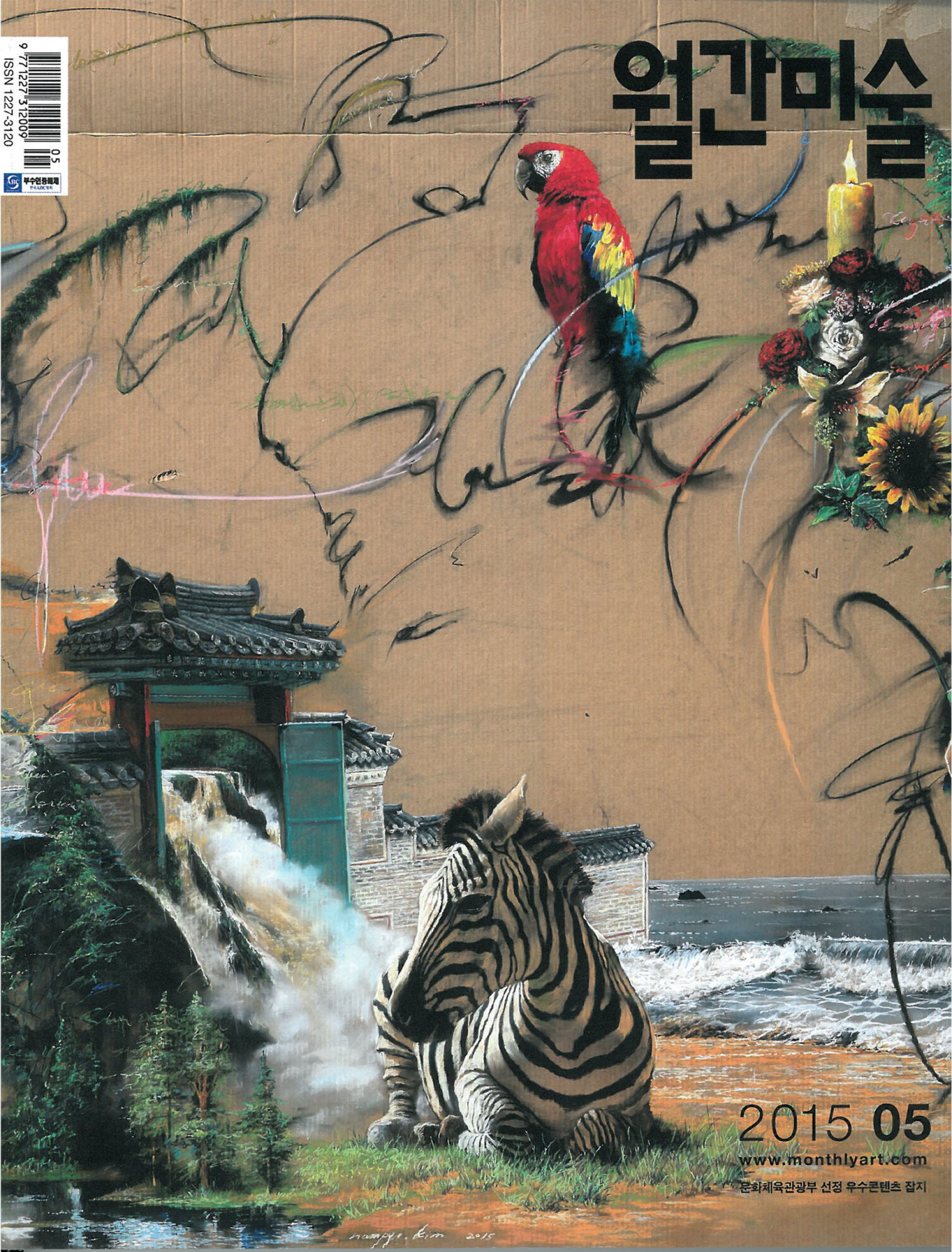


월간미술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5
부수인용권
KOB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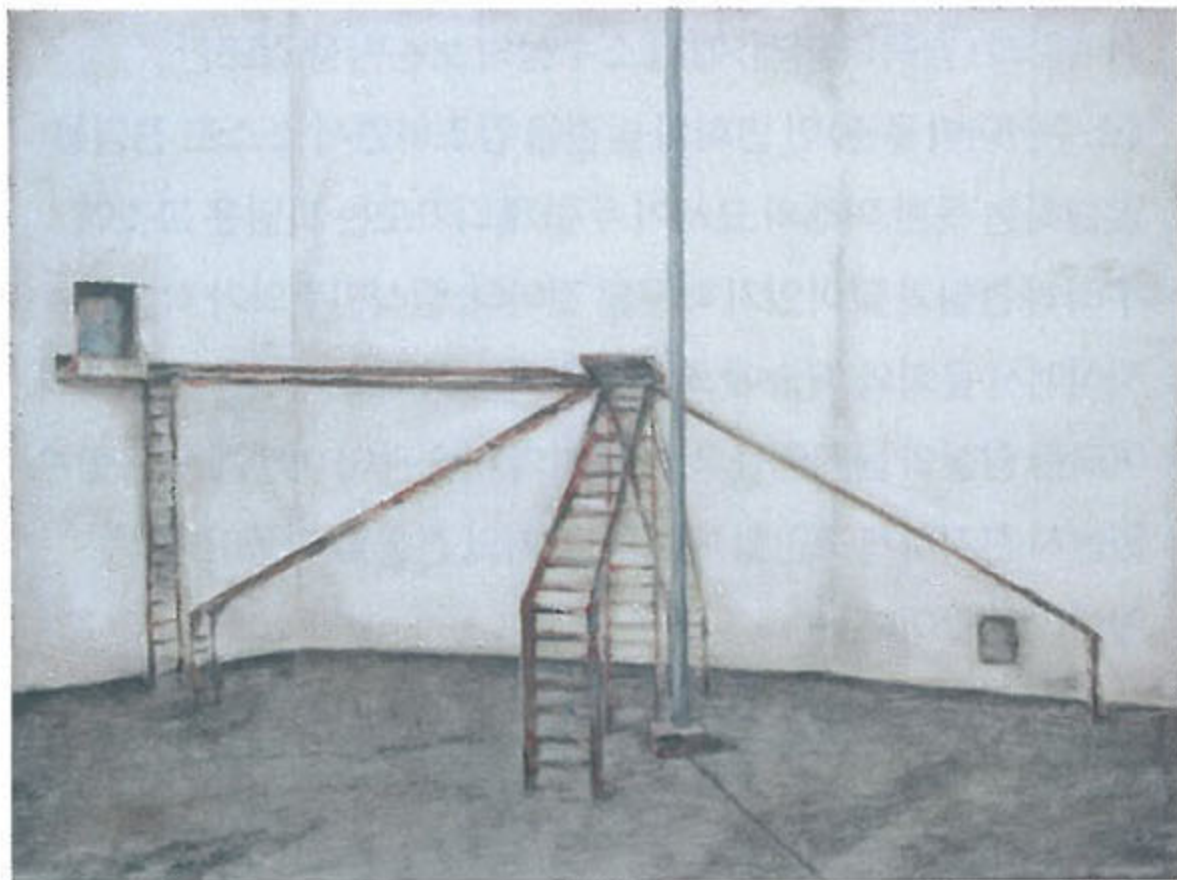


2015 05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happy.kim 2015



노충현

작가는 동물원이 폐장하고 동물이 부재한, 일시적으로 텅 빈 활기 없는 공간을 회화로 옮겼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 즉, 인간의 흔적은 두드러진다. 작품 제목을 비롯해 작가 특유의 색감과 화면 처리 방식은 공간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공간에 대한 시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든다.

왼쪽 <붉은 거미> 캔버스에 유채 97×130.3cm 2006 오른쪽 <놀이방> 캔버스에 유채 97×130.3cm_2006